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8일 목요일 음 8월 22일 (14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19℃, 낮 최고 기온은 22~23℃의 분포를 보이겠다. 오전에 산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20%	제 주	20%
30%	성 산	20%
0%	고 산	0%
20%	서귀포	10%

	해뜸 06:33 / 해짐 18:09	달뜸 22:10 / 달짐 12:03
물때	만조 01:15 / 14:41	간조 08:10 / 21:18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18/24℃
모레	흐리고 비	19/23℃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관심	보통

월드뉴스

수갑 채우고 동요 강제… 미 교도관 기소

'상어 가족' 계속 듣게 해

'아기 상어' 노래 동영상 한장면

죄수들에게 원하지 않는 노래를 강제로 듣게 한 미국 교도관들이 기소됐다.

7일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미국 남부 오클라호마주 교도소의 교도관 2명과 이들의 감독자가 수감자들에게 수갑을 채운 뒤 여러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동요인 '상어 가족(baby shark)'을 듣게 한 혐의(경범죄)로 전날 기소됐다.

상어 가족'은 2년 전 온라인을 통해 처음 소개된 동요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며 67억번 이상 조회됐다. 아이들에게는 노래가 밝고 재밌다는 평가가 있지만, 전체적인 가사와 운율이 반복적이고 단조로워 계속 들으면 질린다는 지적도 있다.

교도관 2명은 작년 11~12월 최소 4명의 수감자에게 등 뒤로 수갑을 채운 후 벽에 기대고 서서 시끄러울 정도로 큰 소리의 '아기 상어 가족' 노래를 몇 시간씩 듣도록 했다.

감독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다.

이들 교도관과 감독자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직후 퇴직했다.

오클라호마 지방 검사는 "이들이 저지른 나쁜 짓에 걸맞은 강력한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해 아쉽다"면서 "엄벌에 처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역 경찰도 "교도관들의 수감자 학대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윤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담론

보존과 개발 그리고 기록

오 수 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최근 교보문고 앞 글 판에 내걸린 글귀로 지인께서 가슴에 와 닿는다며 사진으로 공유해 주셨다.

이 글은 1980년대 포크밴드였던 시인과 촌장의 노래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모두가 원하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해준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평온한 일상을 바라는 우리의 희망이나,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갈등의 천국이 돼버린 제주 섬을 경험하는 우리를 볼 때 풍경 노래처럼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한가지일 것이다. 벌써 제주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표명하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든 지 15년이 흘렀다. 그 사이 제주 발전 정책에는 법적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의 당위성을 부여해 주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등재된 세계적 가치보전이란 세계자연유산 때문에 우리사회는 개발과 보존에 대한 이해관계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주민들의 생활공간에서 정주여건이란 이유만으로 슬며시 벌어지는 각종 개발사업들이다. 과거의 전통을 옹기종기 보여주었던 오래된 마을에서는 옛길의 흔적을 볼 수 없도록 쭉쭉 뻗은 도로가 당연시됐고, 그 사이로 다세대주택과 타운하우스들이 마을 확장을 유도했다. 게다가 오름의 능선과 숲속의 경관을 자랑하던 중산간 곳곳마다 골프장을 낀 관광숙박시설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공간 확장은 과거의 경관과 습속을 희석시키고 있는 주요 요인이지만 너무 익숙해진 개발이 됐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마을마다 마을기록화사업에 대한 요구가 많다. 물론 기록은 과거에도 존재했다.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중국, 일본, 고려 등의 사서에 탐라와 제주의 현상이 부분적으로 기록돼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사건을 기록한 계록과 통사격인 읍지가 있었고, 목민관이나 유배인에 의해 기록된 문집들이 제주를 소개하기도 했다. 근현대에 오면서부터는 지역학교를 중심으로 '향토지'라는 기록물들이 간간이 발간되기도 했지만, 그보다 마을회관이라든가, 마을 어귀에 공덕비, 기념비 등 비석의 형태를 빌어 마을에서 일어났던 중요 사건을 후세들에게 귀감으로 남기려 했다. 특별자치도 이후부터는 행정동을 중심으로 지역 전반에 걸친 역사, 자연, 문화, 사건 등을 기록하는 종합지로서 읍·면·동지들을 지원해 발간해 오고 있다. 이처럼 광의적이거나 단편적인 마을 기록들은 많지만 오래된 자연마을의 특징과 현황을 상세히 보여줄 수 있는 마을별 통사로서 기록을 찾기는 쉽지 않다.

최근에 들면서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고 싶어 하는 자생 마을이 많은 이유는 우리만이 가진 변화상을 상세히 남기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르겠다. 급속히 변해가는 문화경관과 자연경관의 모습, 많은 이주민의 거주왕래로 조급함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이유야 어쨌든 현재를 살아가는 제주인의 자기규정이라 할 수 있는 정체성을 찾기 위한 절대적 노력의 요구일 수 있기에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풍경의 가사를 떠올려 보면서, 오랜 세월 제주에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이 마을 기록화 사업을 통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으로 돌려놓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열린마당

청렴 제주 만들기

이 원 철
동부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

치우치지 않는 공정, 내 몫을 다하는 책임, 함께 지키는 약속, 진실을 위한 정직, 욕심을 버리는 절제, 공공을 위한 배려 등 이 모든 단어는 청렴으로 압축할 수 있다.

벼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는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라는 구절이 있다. '공렴'이라는 공직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향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직자는 다른 직업군보다 청렴, 공정 등의 윤리 규범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공직자는 국가를 보여주는 거울이며 소수의 행실이 다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공직사회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9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제주도는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의 행위 기준을 강화하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더불어 제주도 전 공직자가 청렴 활동에 참여하는 등 높은 청렴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청렴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의 맑은 마음가짐과 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만 그치지 않고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상 속 청렴 의지를 다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코로나19로 도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는 어떤 유혹에도 단호해야 하며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

청렴 행정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지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탄소포인트제'

신 혜 연
제주시 이호동 주무관

올해 제주는 최장기간 장마와 가장 늦게 장마가 끝난 해 기록을 모두 경신했다. 육지는 북극의 이상 고온의 영향을 받아 장마가 예기치 않게 길어지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같은 '이상 기후' 현상은 산업화 이후 탄소 발생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북극 지방의 고온 현상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이며, 탄소배출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국제사회의 비난받고 있다. 이런 비난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다. 100만 세대가 동참해 1가구당 1㎾씩 절약할 경우, 원전 1개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아끼는 효과가 있고, 이같이 저탄소 생활에 동참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연 2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전기 감축률이 5~10%이면 5000원, 10~15%이면 1만원, 15% 이상이면 1만5000원을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며, 홈페이지(cpoint.or.kr)나 제주시 환경관리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라도 탄소 발생량을 줄여 뜨거워지는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생각을 직접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탄소포인트제 가입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마음속의 다짐을 실행한다면, 저탄소 생활 실천의 첫 걸음을 떼고, 지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 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례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어짐.

·카라향	1, 4년생	·궁천변이	1, 2년생
·유라실생	2,3,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귤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순서 : 학원방문 상담 → 고용센터
(내선)전기공사 기능인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대 상 – 모집 조기마감될수있음
근시일 모집 마감
구직자 / 재직자 / 영세사업자 등
– 7개월(09:00~16:00) 성실하게 수료하고 고용보험 취업가능 하신분
– 일정 소득이상 특수고용자, 자영업자, 대기업종사자,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학생등 제외
교육기간
근시일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등
※ 필요서류 :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축 취업 | 2019년 7월 종료과정 전원취업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jewon.com